

어린이 책꽂이



▲고조선 소년 우지기, 철기공방을 지켜라= '역사일기'시리즈 2권 고조선 편. 농사짓기, 철기 만들기, 범금 8조 같은 흥미로운면서도 아이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20~25가지 주제로 나눠 담았다. 책에 실린 그림과 글은 역사학자 외에도 복식, 음식,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사계절·1만2천800원>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한 뒤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한 동화다. 새 학교로 전학 온 우진이는 아빠가 주유소 사장님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또 중학교밖에 못 나와 부끄러워하는 엄마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고 거짓말한다. 하지만 친구에게 거짓말을 들킬 위기에 처하고... <시공주니어·8천500원>



▲공부의 대가, 정약용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정약용 공부법=학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낸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이 들려주는 지식을 정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공부법을 담았다. 선생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6가지 공부법을 가르쳐며 공부의 기본을 세우도록 가르친다. <주니어랜덤·9천500원>



▲쇼팽의 음악편지=음악가 프레데릭 쇼팽의 일생을 그가 작곡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흥미진진하고 가슴 찡한 동화로 엮었다. 음악만 들으면 하품을 하는 장난꾸러기 훈이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자물쇠가 달린 먼지투성이의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 훈이는 쇼팽이 살았던 과거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살림어린이·9천500원>



▲정말 씻기 싫어=아이들이 꼭 길었으면 하는 '정결' 습관을 길러주는 동화다. 안 씻기 대장 정호의 이야기를 통해 왜 씻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씻고 난 뒤의 정결하고 기분 좋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꼬질꼬질한 행동을 하는 주인공 정호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 낸다. <스콜라·8천500원>



▲대단해 대단해=우산은 대단해!, 하마도 대단해! 신발, 땅, 쾡거루, 친구...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지는 사물의 대단함을 찾아 칭찬해 줄 수 있는 눈을 키워 주는 그림책이다. 책 속 그림들은 크레파스와 색연필로 표현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해 재미를 더했다. <뜨인돌어린이·8천800원>



▲못 말리는 까미 황마홍=영양 출신 동화작가 이성자씨의 신작 창작동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현구가 '까미'라는 별명을 가진 조금은 특이한 단문화가족 혼혈 소녀 마홍이와 같은 반 짝꿍이 되어 겪는 우여곡절을 담았다. 두 아이가 친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배려하고 친구를 대하는 진심을 배울 수 있다. <중앙출판사·8천원>

▲겉이 날 때 불러봐 뽕뽕 영령=독일 아동문학가 크리스티네 보스틀링거와 프란치스카 비어만이 쓰고 그린 최신작. 요치와 미치는 오빠 동생사이다. 영령이라는 소재를 빌려 겁쟁이 오빠와 무서울 것이 없는 여동생이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을 그렸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조선시대 女君子 장계향의 삶과 음식이야기

안동 장씨, 400년 명가...

김서령 지음



조선 중기시대 썩어진 '음식 디미방'은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다. 떡, 어육류 등의 조리법과 각종 술 담그기 등을 자세히 기록한 책으로 17세기 한국인들의 식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으로 꼽힌다. 책에 실린 음식은 모두 146가지에 달한다.

'음식 디미방'을 쓴 이는 안동 양반가의 정부인 장씨 '장계향'(1598~1680)으로 몇년 전 출간돼 페미니즘 논란을 일으켰던 이문열의 소설 '선덕'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서령의 家' 등을 펴낸 안동 출신 칼럼니스트 김서령의 '안동 장씨, 400년 명가를 만든다-여성군자 장계향의 음식 디미방 이야기'는 여성 군자로, 시대를 앞서갔던 조선 여인 장계향의 삶을 오롯이 복원한 책이다.

저자는 소설 형식을 빌려 장계향의 일생을 더듬어 나간다. 모든 게 남성 중심이었던 조선시대에, 여성에게 허용된 것은 순종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장계향은 경서를 읽고, 시를 쓰며 문재를 드러냈다. 아들들을 직접 학문이 높았던 친정 아버지에게 데려가 교육시키는,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을 감행했던 그녀는 일곱 아들을 이조판서 등 승양받는 선비로 키워냈다.

또 어려움에 처한 백성과 함께 울며 구체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온 그녀는 시가인 재령 이씨와 친가인 안동 장씨 두 집안을 모두 큰 가문으로 일궈내는 밑거름 역할을 했다.

저자는 특히 '음식 디미방'을 조선중기의 조리법을 써내려간 단순한 '레시피북'으로 보지 않았다. 요리책이 아니라, '여성이 도에 이르는 방법을 조목

조목 기록해 놓은 경전'으로 인식했다. 각각의 음식 하나하나에 장계향의 일생과 그 안에 녹아 있는 삶의 자제를 섬세하게 읽어냈다.

만곳에서 온 반가운 손님을 맞는 정성을 '정감주'에서, 서에 대가에게서 붓을 받던 날의 감회를 '약사춘'에서, 어려운 시절 이웃의 고통을 보고 느꼈을 아픔을 '옹장'(곰발바닥 요리)에서 느낄 수 있다.

저자는 계향이 '도(道)'를 생각하며 책을 썼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도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일상의 삶이었다. 여성성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부녀가 도와 예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음식만드는 법'에 눈길을 돌렸다.

'어진 도리'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녀에게 음식 만드는 일은 한낱 사소한 부역일이다.

기풍과 예의의 축적이고, 여인들 사이에 장구하게 흐르는 정신의 유산이



정부인 안동 장씨는 숙종 6년 83세를 일기로 경북 영양 석보촌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부인 안동 장씨의 묘. 왼쪽은 정부인 장씨가 펴낸 책 '음식 디미방'. <푸른역사 제공>

었다. 그녀는 그 유산을 책으로 기록한어나기 몇해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유산이다. 가의 전통을 손녀에게 전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위해 조모가 등장한다. <푸른역사·1만5천원> /김미영기자 mekim@kwangju.co.kr

신라 화랑들의 사랑과 야망

신라를 뒤흔든 ...

이수광 지음



지난해 인기리에 방송됐던 드라마 '선덕여왕'에는 당시를 풍미했던 화랑 김유신, 김춘추, 비담, 하중, 알천랑 등이 나온다. 천년 전 이들 화랑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추리소설과 역사서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글쓰기와 풍부한 상상력으로 독특한 대중역사서를 집필해온 이수광씨가 화랑들의 사랑과 야망, 우정과 충정을 그린 역사 픽션 '신라를 뒤흔든 16인의 화랑'을 출간했다. 특히 이번 책은 화랑에 대한 기록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역사서인 '화랑세기'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화랑의 참모습을 복원해낸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김대문의 '화랑세기'와 김부식의 '삼국사기', 일연의 '삼국유사' 등을 근거로 16명의 대표적인 화랑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신라 화랑의 상징 '위화랑', 미실이 사랑한 화랑 '사다함', 신라의 삼보로 불린 화랑 '흠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저자는 이들을 통해 신라 사회의 정치사는 물론이고 그 이면에 있는 사회사, 문화사, 성풍속사까지 다양한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화랑의 실제 모습을 좀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소설적 기법을 활용, 마치 역사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폴빛·1만4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흥미진진한 과학자들의 삶

별을 따라간 사람들

이향순 지음



과학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과학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양과학서 한 권이 나왔다.

'과학사 신문을' 펴내기도 했던 이향순씨가 과학전문기자로 활동했던 20여 년 동안 꾸준히 수집한 자료와 편집노하우를 바탕으로 '별을 따라간 사람들'을 엮었다.

저자는 신들의 세계 우주를 인간의 눈으로 엿본 아리스토텔레스, 별자리를 정리한 고대 관측 천문학의 거장 히파르코스, 고대 천문학을 완성한 하늘의 전도사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 태양중심설 밝힌 우주의 혁명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등 모두 열 명의 과학자를 선정하고 그의 삶을 치밀하게 추적했다. 과학사의 한 획을 그어 '별'이 된 과학자의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책의 구성도 독특하다. '귀에 속속 들어오는 재미있는 과학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당대 과학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가상 인터뷰와 과학자에게 보내는 편지 등 색다른 형식으로 구성했다.

과학자의 사상과 업적, 중요한 과학 사건의 사회적 배경,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사진, 그림자료 등과 함께 실어 과학에 흥미없는 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현암사·1만6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3인의 중국 제왕의 통치술

제왕

우한 지음



진 시황, 한 문제, 당 태종, 주원장..., 그들은 어떻게 부패한 구왕조를 폐하고 새 시대를 열어 세상을 혁신했는가?

'명장', '대어행가' 등으로 국내에 알려진 중국 역사학자 우한이 쓴 '제왕-제상을 혁신한 군주들'은 정치, 사회, 경제 등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 새 시대를 연 중국 최고의 제왕 13인의 진정한 '통치의 술(術)'에 대해 설명한다.

1등 국가를 추창했던 진 시황, 강력한 경제 부양책으로 민심을 잡았던 한 문제, 명확한 상벌로 팔기군을 무적의 전사로 만들었던 누르하치 등과 같은 불멸의 통치자들은 대담한 전쟁과 정치 개혁으로 중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음으로써 오늘날까지 역대 최고의 제왕으로 추앙받고 있다.

저자는 그들의 위대한 리더십과 통치술을 정치, 대중·민심, 전쟁 3부로 나누고 각각 '내부의 적을 평정하라', '민심을 등에 업고 천하를 다스려라', '제국을 지킬 힘을 길러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내부와 외부의 적들을 제압하고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았던 그들의 모습은 대운하와 4대강, 세종시 이전 문제 등 수많은 갈등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준다. <살림·2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장매매
■ 위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지: 6,345㎡ (1,920평)
■ 건물: 1,685㎡ (510평)
■ 전기: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 가동중
연락처: 011-612-2823
이메일: diid71@hanmail.net

토지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4,000평
• 건물: 650평
• 전: 9,500평
• 합계: 13,500평
- 매가: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41-0163369호
• 연락처: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음성 채팅의 지진
광주, 전남 최고!
전통성인 커뮤니티
13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
국내는 물론 해외 교포도 신뢰 받는 전문연결서비스
통화료 수 있습니다!
만일 수도 있습니다! 무망입니다.
만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입니다.
지급정확 확인하세요
전화유지 연결
전국 최저 요금제 이용!
유대론, 일반전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588-3533
*여성분은 문의시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히트폰
전화정보(ARS) 사업자 모집 | 무제한, 무정보, 무의탁, 무연락 | 010. 3808. 2888

회사매각공고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062-523-0004